

자료문의 : 고승진 미주협력과장(02-2110-5381), 장근무 서기관(5196)

한-콜롬비아 녹색산업 및 광물자원개발 협력강화

- 산토스(Santos) 대통령 방한계기 에너지·자원개발 협력 추진 -

□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콜롬비아 산토스(Santos) 대통령 방한에 수행한 광물에너지부 로다도 장관(Carlos Enrique Rodado)을 9.14일 면담하고 녹색산업 협력에 관한 *MOU를 체결하였음

* '11년 9월 14일(수) 18:00, 하얏트호텔 남산6호실

○ 양국 장관은, 한국은 '저탄소 녹색성장 선언('08.8.15)' 이후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, 국민 인식변화가 맞물려 아시아 지역의 녹색산업 강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,

* 최근 3년간('07→'10)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현황 :
매출 1,250→8,080백만\$(6.5배), 수출 625→4,535백만\$(7.3배)
민간투자 700→3,550백만\$(5.1배), 일자리 창출 30,065개

○ 콜롬비아는 '10년 발표된 국가개발계획*에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혁신과제로 환경지속성을 강조하고 에너지효율화·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상호 인식하고,

* 現 산토스(Santos)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으로 2014년까지 총 2,5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추진 계획을 포괄

○ 양국은 ESCO사업, 신재생에너지, 녹색성장 전략 부문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

- ① (ESCO*)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(산업의 녹색화), 대형 건물 효율개선(그린 빌딩) 사업 등

* ESCO(Energy Service Company)가 기술·자본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, 에너지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상환 받도록 하는 사업
<사례> 한-멕시코 ESCO 공동사업 추진합의('10.7 VIP 멕시코 순방시)

- ② (신재생에너지)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

- ③ (녹색성장 전략) 녹색성장 전략수립의 전제조건인 에너지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

<사례> 한(에너지경제연구원)-몽고(에너지부)간 에너지통계 인력교육 프로그램

○ 지식경제부는 상기한 동 분야에 대해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콜롬비아측과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음

□ 아울러 양국 장관의 임석하에 광물자원공사-STX·동부발전은 콜롬비아 IDEA社(안티오키아주 개발공사)와 "안티오키아주 유연탄 프로젝트 공동 탐사·개발을 위한 MOU"를 체결하였음

○ 동 MOU 체결을 통해 양측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향후 유망 투자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투자를 하기로 한 바,

- IDEA측은 광업권과 항만이용권을 출자하고, 한국컨소시엄은 탐사, 개발,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

○ 콜롬비아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특히, 유연탄 생산량이 남미 1위, 세계 10위의 국가로서, 최근 치안 안정과 함께 유연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국가임

- 한국은 '10년 유연탄 수입량 1.1억톤의 주요 수입국이며,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 유연탄 수출국으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유연탄을 비롯한 광물자원 분야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산업자원협력실 출범 이후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에너지·자원, 산업 전 부문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,

○ 최중경 장관은 지난 8월 방한한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(8.10)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,

○ 아울러 8월말에는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한 바 있음